창업 트렌드 '작은 점포'가 뜬다

점포 쪼개고 빈공간 활용 임대료·인테리어 비용 절감
가성비 좋은 제품 제공할 수 있고 인건비 부담도 줄여

#1. 광산구 하남동 A카페는 '테이크아웃' 전문점이다. 점포는 33㎡(10평) 남짓 규모로 종업원 두 명이 일하는 공간이다. 다른 카페처럼 손님들이 앉아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대신 임대료와 인테리어 비용을 절감해 부담을 줄이는 '창업전략'이다. 주변에 경쟁업소가 많지만 '가성비' 높은 커피로 꾸준히 고객을 모으고 있다.

#2. 광주시 서구 동천동 B가게는 분식집과 미용실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다. 사람들이 다니는 인도 쪽을 향해서는 분식을 팔고, 점포 내부에서는 미용실 영업을 하는 형태다.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손님이 없는 시간에는 분식을 팔아 수입을 늘리고 있다.

'작은 점포'가 뜨고 있다. 초창기 투자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데다 그만큼 소비자들에게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좋은 제품을 내놓을 수 있어 창업시장에서 작은 점포가 주목받는 분위기다. 여기에 건물의 공간을 나눠 다른 형태의 가게를 동시에 운영하는 점포들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5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동네상권과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핫도그·호떡 등 길거리 음식과 찌개와 국밥 등 외식업까지 33㎡(10평) 안팎의 소형점포가 유행하고 있다.

이런 소형점포들의 가장 큰 장점은 임대료와 인테리어 비용 등 초기 창업비용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점포가 작고 메뉴가 간편할수록 창업자 혼자 음식 조리부터 서빙, 계산까지 모두 할 수 있어 아르바이트를 고용하기 위해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현재 소자본 창업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는 분석이다.

초기 투자금과 매달 소요되는 경비가 전체적으로 줄어들면서 최근 소비트렌드인 '가성비'까지 맞출 수 있다. 이로 인한 고객확보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실속형 창업 아이템'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음식점 관계자는 "요즘 아르바이트 모집광고를 내도 워낙 일이 힘들어 꾸준히 일할 사람을 찾는 것도 힘들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소규모 점포는 인건비 부담도 덜 수 있어 훨씬 효율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갈수록 치솟는 임대료에 창업 후 폐업률이 증가하면서 기존 점포를 나눠 쓰는 점포 공유도 창업시장에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한 공간을 서로 다른 가게가 나눠쓰면서 임대료 부담을 더는 형태다.

창업자의 경우에는 부동산 시세에 비해 보다 저렴하게 건물을 임대할 수 있고, 건물주도 각각 점포에 임대료를 받게 되면서 기존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석 JS컨설팅 대표는 "소규모 점포 창업과 점포공유는 투자비용을 줄이고 매달 소모되는 비용까지 덜어줘 창업 후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며 "다만 유동인구가 충분히 많은 과밀상권에서 주효한 창업아이템"이라고 설명했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추운 겨울 녹이는 광주은행 직원들의 연탄나눔 봉사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5일 오전 광산구 용곡동과 소촌동에 위치한 결손가정과 다자녀가정에 따뜻한 온기를 나누는 연탄배달 봉사활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쌀쌀한 겨울 날씨 속에 송종욱 광주은행장을 비롯한 지역사랑봉사단과 신입직원 등 약 50여명은 사랑의 연탄 2000장을 창고에 옮겼다. 또한 각 가정의 아동들에게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는 신발과 옷을 선물하고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연탄나눔 봉사활동에 앞서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광주지역본부에는 겨울철 취약계층을 위한 난방비를 전달했다.

송종욱 광주은행장은 "올해 연탄가격이 올라서 어려운 이웃들의 겨울나기가 더욱 힘들어질 것 같아 걱정이 앞선다"며 "광주은행 지역사랑봉사단원과 신입직원들이 전한 정성이 우리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로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송종욱 광주은행장이 임직원들과 함께 5일 광산구 소촌동 다자녀가정집에 연탄배달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 광산업 유망기술 로드쇼·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오늘까지 DJ센터

광산업 신제품과 유망 기술을 한 자리에서 보고 수출 상담까지 할 수 있는 국제행사가 광주에서 열리고 있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한국광산업진흥회가 주관하는 '2017 광주 광산업 유망기술 로드쇼 및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가 6일까지 광주시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광산업 유망기술 로드쇼'에는 78개 기업 및 기관이 참가해 광통신 부품과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사물인터넷(IoT),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100여 제품을 전시했다.

특히 광주시의 광산업 육성사업에 의해 구축된 광통신, 광의료, OLED 분야 협동조합과 한국광기술원, ETRI 등 광산업 육성 지원기관에서 기업에게 기술 이전된 제품들도 선보여 주목을 받았다.

이번 행사는 광주 지역 광기업의 제품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도 활발하게 진행된다.

한국광산업진흥회는 미국, 유럽, 아시아, 중동 등 주요 국가에 12개 마케팅센터를 구축한 한국광산업진흥회는 이번 수출상담회에서 실질구매력을 갖춘 24개국 150여명의 해외바이어와 국내기업과 상담 매칭을 주선한다.

일본의 AXIA, SHIN-EI, RISDAN, SIC, 캐나다 Green Bird electric solutions 등이 LED 가로등, 보안등, 투광등과 에너지 모듈 및 저장장치 구입 상담을 진행하며 프랑스와 이란, 인도의 관련 설비회사는 광통신과 LED조명 기반시설 추진을 위해 국내 기업과의 수출 상담과 현지 공장 시찰도 이뤄졌다.

이재형 한국광산업진흥회장은 "이번 행사가 국내 광산업체의 실익을 창출할 수 있는 마케팅장으로서 국내 광산업이 세계로 진출하는 기회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10.12 (+8.45)
- 금리 (국고채 3년) 2.11% (+0.03)
- 코스닥 774.12 (-8.33)
- 환율 (USD) 1085.80원 (-2.90)

벤츠 코리아 '2017 소비자만족도평가 대상' 수입차 부문 1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2017 대한민국 소비자만족도평가 대상' 수입차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고 5일 밝혔다.

소비자만족도평가 대상은 대한소비자협의회와 KCA한국소비자평가가 소비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시상식은 지난 4일 서울시청 태평홀에서 열렸다.

이번에 신설된 수입차 부문은 올해 10월 한 달간 이용고객 및 예비 소비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브랜드 인식도 ▲디자인 만족도 ▲내부 및 사양 옵션 만족도 ▲주행감 및 승차감 만족도 등 10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선정됐다.

이 가운데 벤츠 코리아는 브랜드 인식도와 차량 디자인 만족도, 주행감 및 승차감 만족도 등 항목에서 최고점을 받았으며 구매 및 재구매 의향 항목에서 가장 큰 점수 차를 기록해 19개 수입차 브랜드 중 1위로 선정됐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간편식에 가장 관심 많은 고객들은 30대
쇼핑 검색 많은 간편식 즉석밥·냉동만두

닐슨코리아·네이버 분석

국내에서 가정 간편식에 가장 관심이 많은 고객은 30대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쇼핑 검색이 가장 많았던 간편식은 '상품밥'(즉석밥)과 '냉동만두'였다.

시장 조사 기관인 닐슨코리아와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는 양사의 간편식 관련 데이터를 공동 분석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5일 밝혔다.

분석 결과를 보면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네이버 통합검색창과 쇼핑 검색창에 간편식 질의어를 입력했던 이용자 중 30대 비중은 38.3%로 연령별 최대였다. 20대가 34.6%로 그 뒤를 따랐다.

성별로는 간편식 키워드 검색량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65%에 달해 남성(35%)을 크게 앞질렀다.

네이버 쇼핑 검색에서 가장 많이 입력됐던 간편식 품목은 상품밥으로 총 검색량의 32.5%로 집계됐다. 2위는 냉동만두(18.1%)였고 그 외 품목으로는 '레토르트 국·탕·찌개'(8.4%), '시리얼'(8.1%), '시리얼바'(6.3%) 등이 있다.

네이버 통합 검색에서는 '도시락'이 검색량 비중 21.0%로 가장 관심이 컸다. 2~5위는 상품밥(18.0%), 냉동만두(14.4%), 레토르트 국·탕·찌개(8.7%), 시리얼(7.2%)로 쇼핑 검색 순위와 패턴이 비슷했다.

닐슨 관계자는 "자사의 오프라인 상점 판매 데이터를 분석해봐도 실제 많이 팔리는 간편식 순위가 냉동만두·상품밥·시리얼·후랑크소시지·냉장면 순이라 네이버 측 검색 데이터와 유사성이 컸다"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네이버 통합검색으로 들어온 간편식 검색량은 작년 동기와 비교해 약 26%가 늘었다. 같은 기간 네이버 쇼핑 검색의 간편식 검색 증가율은 132%에 달했다.

/연합뉴스

은행권 대출연체율 한 달 만에 상승 … 10월 말 0.48%

은행권의 대출연체율이 한 달 만에 상승 반전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원화 대출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전월보다 0.05%포인트 상승한 0.48%로 집계됐다.

지난 9월말, 3개월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던 원화 대출연체율은 한 달 만에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다. 연체채권 잔액은 7조1000억원으로 9월 말(6조4000억원) 대비 7000억원 증가했다. 10월 신규 연체 발생액이 1조4000억원으로 전월(1조1000억원)보다 늘어난 가운데, 은행들의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6000억원으로 전월(2조1000억원)보다 크게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기업대출과 가계대출 모두 연체율이 전월보다 상승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0.65%로 전월 말 대비 0.07%포인트 상승했다. 대기업은 0.42%로 0.02%포인트, 중소기업은 0.71%로 0.08%포인트 각각 올랐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27%로 전월 대비 0.02%포인트 상승했다. /연합뉴스